

##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김 분 태\*

### 目 次

- |               |           |
|---------------|-----------|
| I. 인류의 경제적 문제 | III. 맺은 글 |
| II. 이슬람적 해결책  |           |

### I. 인류의 경제적 문제

#### 1. 부분적 접근 방법의 문제

삶에서의 경제적 측면이 항상 인간에게 큰 중요성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관계없이 인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오늘날 경제적 문제에 대한 너무나 많은 논의, 대화 그리고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들은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잘 이해되어지기 보다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있

---

■ 투고일자 : 2017년 11월 17일, 심사일자 : 2017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12월 26일.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다.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래어로 설명하는 의사를 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장된 용어와 사회경제적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학문적 어투로 경제학자가 설명하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경제적 상황을 학문적·기술적 과장 혹은 표현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면 경제적 문제를 더 쉽게 이해되고 큰 어려움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장치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비무슬림들은 경제적 문제가 인간이자 도덕적인 존재로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독립적인 문제로서만 다루려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의 손상된 간을 치료하기 위해 간의 역할, 기능,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간만 치료하는 것과 같다. 경제 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므로 경제만을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독립해서 다루려는 시도는 오히려 혼란, 혼동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제적 문제를 전문화·특수화로만 해결하는 것은 인류가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인류의 경제 문제를 단순히 볼 때 사회경제적 발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잠재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삶의 기본적 필수품을 어떻게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인류는 태초부터 다른 생명체처럼 생존을 위한 최저생활은 자연의 풍족함으로 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슬림의 신인 알라는 인간을 영원히 다른 생명체처럼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알라는 인간에게 본능과 성향을 부여하여 고독하고 고립된 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적인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독창성과 생계를 위한 도구 이상의 큰 수단을 통해서 생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졌다.<sup>1)</sup>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인류가 공동체의 삶에 자극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예컨대 인간의 다른 이성으로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성향, 자녀의

---

1) 꾸란 제13장 제4절, “땅에는 연결된 여러 구역이 있고 포도밭, 전답 그리고 야자대추나무가 무리를 이루는 것도 있고 독립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의 물로 자란다. 우리들은 식용으로 그 가운데의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이 중에는 분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증거가 있다.”; 꾸란 제6장 제165절, “알라께서는 너희들을 지상의 대리자로 하셔서 너희들 속에 어떤 자에게는 다른 자보다 더 높은 신분을 주시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들을 시험하신다.”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부모에로의 의탁, 종족유지 본능이 공동체 삶의 영속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문명화를 향한 인류의 진보는 그 창조자인 알라에 의해 예정된 것만큼 인간 본성의 명령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 2. 빈부의 격차와 사유화 문제

인류의 문명 탄생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한다.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다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간 상호간 의존이 증가함으로써 자급자족이 상실되어진다. 둘째,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운송을 위해 더 많은 도구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은 새로운 수단과 자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인간은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 생산에 이용되었던 도구들, 거주와 노동을 위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 소유물을 자신의 최측근이나 지인들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처럼 인류 문명발전에 따라 속출하게 된 다양한 직업, 사업 및 거래, 교환 표준으로 출현한 통화, 국제적인 거래와 수출입의 증가, 생산 도구 및 수단의 이용 증가, 그리고 소유권과 상속권의 출현 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어떠한 것도 종교적 속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인류 문명 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것들 역시 자연적인 현상일 뿐 잘못된 것이거나 속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첫째,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은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벌 수 있으며 다른 이는 기본적인 필요보다 훨씬 적게 벌 수 있다.<sup>2)</sup> 둘째, 많은 상속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빈손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모든 인류 사회는 어린이, 노약자, 환자 및 장애자와 같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것이 불가능한 자도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근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있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고용이 창출되어 거래, 통상, 기업 및 농경 등에서

---

2) 이슬람법은 개인간의 능력차이 뿐만 아니라 언어, 피부색, 인종 등 인간을 식별하기 위한 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이 인종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꾸란 제49장 제13절, “아, 믿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를 남녀로 나누어 창조하였다. 너희들을 부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너희들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중의 가장 존귀한 자는 보다 알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꾸란 제30장 제22절, “천지와 갖가지 언어와 피부의 빛깔을 창조한 것도 알라의 징표다. 진실로 그 가운데는 지식 있는 자에의 징표가 있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3. 경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

샤리아<sup>3)</sup>에서 경제 문제의 시발점을 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기심에서 찾는다. 이러한 이기심은 궁극적으로 전체적 경제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타락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커지고 확대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소유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원래의 선함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외부적으로 법과 사회적 정의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정치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잘못된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기심, 탐욕, 인색, 부정직·근시안적이고 독선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타락에서 생긴다. 이들에게 내재된 악은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도 생계유지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논리적이라고 믿게끔 하여 우선적으로 그들의 안락함, 부, 즐거움 그리고 지위향상을 위해 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절대권력자이자 신격화된 통치자로 이들의 지배권을 영구화하려고 한다.

### 4. 부와 지위확대(Self-aggrandizement)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샤리아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악은 생계유지 이상의 수단과 재물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도취된 상태에서 덜 가진 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악한 성향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로 부자는 공동체 내에서 부의 당연한 부분을 박탈당한 자나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얻는 자의 권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

3) 샤리아는 용어는 처음에는 '인도' 혹은 '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꾸란에서는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꾸란 제14장 제12절: "우리들은 알라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라께서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즉, 이슬람법은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Allah)의 성법(聖法)을 말한다. 이를 아라비아어로 샤리아라고 한다. 이슬람교 이전의 샤리아라는 용어는 낙타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길(path)로 의미하였으나, 코란에서는 인간이 따라야 할 길, 즉 샤리아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말은 신이 계시하고 정한 진리(샤리아, Shari'a)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것이였다. 이들 부유층은 혜택받지 못한 자들이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으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맹이 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거나 사회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 결국 부유층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 큰 손해를 초래하게끔 하였다. 이처럼 판단을 잘못된 부유층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의 실질적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요구를 증폭시켰고,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제공되었다.

## 5. 자본 숭배

샤리아는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축적한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알라에 의해 창조된 자원은 그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하고 필수적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만약 당신이 우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속했어야 할 부분이 실수로 당신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예정된 부의 한계를 넘기 위해 시간, 에너지 및 잠재력의 한계를 넘어서신다면 당신은 경제적 동물 혹은 돈을 만드는 기계로 전락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초과하는 경제적 자원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i) 이자부(interest-based) 대부 혹은 (ii) 상업적이고 공업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필요 이상의 부를 가진 일부 부유층과 필요 이하 혹은 전혀 가지지 못한 다수 빈곤층과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인다. 이것이 경제 교환 및 평등의 원칙을 본질로 하는 경제적 관리 시스템이 적대적 경쟁 시스템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라고 한다.

## 6. 적대적 경쟁

이슬람 경제에서 적대적 경쟁으로 불리는 건강하지 못한 경쟁의 발생으로 사회에서 '가진 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것은 이러한 경쟁에서 더 가진 자들이 특권을 거의 받지 못한 자의 자원들까지 흡수하고 이들을 '가

지지 못한 자'의 영역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대적 경쟁은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포함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국가와 공동체로 확산되어 간다. 예컨대 적대적 경쟁의 경향은 국가의 경제를 넘어 착취적 경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세계화한다. 첫째, 모든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임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따라서 생산국의 일반인은 너무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삶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 둘째, 각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신의 영역 또는 덜 개발된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제한을 가한다. 또한 다른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천연자원의 유출을 점검한다. 이는 수출입제한을 넘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하는 국제적 불화로 이어진다. 셋째, 경제적 착취의 계락을 알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에 대한 착취적 공략에 희생양이 된다. 소위 경제적 해적(Economic pirates)은 자국의 잉여물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자본을 더 나은 배당을 받기 위해 다른 국가에 투입된다. 결국 투자된 자본은 전액 회수될 수 없으며, 창출된 수입의 대부분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재투자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차관에 더욱 의존하는 경제 의존화가 심화된다. 결국 이들 국가는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러한 악의적 순환은 적절하게 체크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는 파산될 수도 있으며, 그 때 잉여자본을 소비할 시장이 없어지게 된다.

## 7. 카르텔과 독점

무슬림은 세계적인 적대적 경쟁요소가 은행가, 브로커, 산업 및 상업 카르텔과 독점의 수장들을 포함한 소수의 착취집단을 양산해 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집단이 세계의 경제적 자원을 지배해 오고 있기에 오늘날 인류 전체는 이전보다 훨씬 낮은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운이 좋은 소수만이 도덕적, 지적, 정신적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탐욕적인 것보다 더 숭고한 것에 시간을 쏟고 더 높고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게끔 하는 기회를 가진다. 사실 경제적 분투가 현대의 사악한 시스템 속에서 더욱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거의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성의 불행을 이끄는 이러한 사악한 경제질서는 역으로 세계의 도덕관, 정치시스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템 및 법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과 윤리 수호자는 현실보다는 미래 혹은 내세에 구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분서주하고, 모든 가장은 자신의 수익을 은행에 저축하고 보험을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인간성에 매우 해가 되는 요소는 가장 유익한 것이며 신중함의 표시로 추정된다. 세계의 정치적 통제를 인간의 착취 및 경제적 예측의 수단인 시스템 속에 완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즉 세상의 법질서를 똑같은 경제착취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고 본다. 이러한 법에 따르면 개인은 그들의 공동체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경제적 사투를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유롭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수단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지, 그리고 금지되는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힘들게 일하여 생계를 꾸리는 사람과 공정한 수단과 불공정한 수단 모두를 통해서 부를 늘리는 사람은 법의 눈으로 볼 때 모든 평등하다. 즉 사람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법은 그의 계획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모은 부는 그의 사후에도 축적된 채로 남는 것이 허용된다. 장자상속의 규칙(Rule of Primogeniture), 입양 관행 그리고 대가족 시스템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샤리아는 신이 만든 지구에서 모든 개인에게 생계유지의 수단을 분배하고, 모든 개인이 그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성장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들의 인격이 자유롭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성에 심대한 도전을 가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 8. 공산주의적 해결책의 문제

공산주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그 비책은 사유로부터 국유로의 부의 생산수단의 이전이었으며, 또한 공산당과 같은 공동체의 의해 분배를 위한 책임을 할당시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측면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의 결과가 치명적이기에 결국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 (1) 거대 자본가 (the super capitalist)

공산주의 시스템의 추가적인 문제점은 비록 생산된 물품의 분배와 생산수단의 이용

이 신학적으로 공동체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를 구성하는 소수 관리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처음에는 이들이 공동체에 의해 선출될지라도 이들이 모든 토지의 자원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수령자의 입장이 될 것이다. 결국 대다수 인구는 전능한 관리자 혹은 착취자의 처분 하에 놓이게 된다. 누구도 이들 소수 관리자에 맞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맞선다고 한다면 자신의 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소유자에게 파업을 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근로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전체 나라에서 그 공장주만이 근로할 땅을 유일하게 지배할 수 있다. 만일이 대중적 지지를 얻거나 선의(good cause)라는 것으로 다른 이의 동정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의도에 반한다면 이는 가능하지 못하다. 이러한 공산주의 규범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 국가의 많은 크고 작은 집단의 희생위에서 하나의 거대 자본가(Super Capitalist)가 출몰하게 되는 꼴이다. 즉 공산당은 황제인 동시에 자본의 부호인 공장주이자 봉건영주로 변신하게 된다.

### (2) 착취적인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 하에서 토지의 자원은 온전히 개인의 접근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행정당국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당국은 이 자원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지배자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국가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은 선택권이 없으며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세워진 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자신들의 체제를 만드는 지배 엘리트의 지시에 굴복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질서는 실제로 사회의 모든 개인이 무생물의 천연자원과 다름없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 (3) 자아의 학살

인간 문명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전은 전적으로 별개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개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장은 공산주의처럼 길들여진 인간을 위한 엄격한 계획이 있는 환경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소위 '총괄 기획자'의 집단은 자신들의 지식 한계로 실수를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제시할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수 있다. 융통성 없는 이러한 유형의 인간통제는 인간 문명의 다양성에 치명타를 줄 것이고 사회를 생기없는 단조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문명 성장을 포기하게 하고 인위적이며 잘못된 진화 과정을 야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정지시키고 심각한 정신적 및 도덕적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실수는 공산주의가 경제적인 문제를 인간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데 있다. 이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올바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즉 공산주의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시각을 한쪽으로 치우쳐 본다. 철학, 도덕, 역사, 사회 및 자연과학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학습의 측면 내의 모든 것을 경제에 중심을 둬으로써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샤리아는 세계 경제문제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결책도 인간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나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보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류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시각과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슬람적 해결책

### 1. 기본규범

인간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이슬람 규범 중에 그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이며 이는 궤도에서 이탈한 경우에 인간을 다시 자연스러운 여정으로 돌리는 원칙들이다.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의 정신에서 잘못된 근원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규칙과 규제를 사회에 도입하는 외부적인 예방책에 만족하기 보다 인간 행위와 정신 그 자체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셋 번째 규칙은 이슬람국의 법률규정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적인 권한과 법의 효력은 필수적인 때 또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기본규범을 고려하면, 이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인간이 따르는 부

자연스러운 방식을 제거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이슬람은 행위의 개선에 더 의존하고 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덜 의존한다. 이슬람은 본성의 요구에 순응하는 범위까지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하고, 자신의 힘든 노동을 통해서 그가 얻는 무엇이든 이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해야 하고, 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들 간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샤리아는 또한 사람들이 정의와 공명정대함<sup>4)</sup>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벗어나고 억제와 부정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돕는 제한들을 부과한다.

## 2. 돈벌이

이슬람은 인간이 자신의 적성, 자질 그리고 능력에 따라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생계 유지를 위해 반사회적이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돈을 버는데 하람(Haram)과 할랄(Halal) 수단의 차이점을 만들어 내고, 모든 반사회적 수단을 하람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대단히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샤리아의 규범에 따르면, 술과 모든 취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람일 뿐만 아니라, 그 생산, 판매, 구매 그리고 저장 또한 불법적인 것으로 본다. 샤리아는 생계 수단으로 성매매, 음악, 춤 등과 같은 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획득을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한다. 그러므로 뇌물, 절도, 도박, 투기, 내기, 모든 사기, 사재기, 독점과 카르텔과 같은 생계수단을 하람으로 선언한다. 이슬람은 또한 두 당사자의 권리가 확실하지 않는 사업 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실이 전적으로 순전한 운에 맡겨져 있는 경우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태의 사업거래를 금지한다.<sup>5)</sup>

---

4) 꾸란은 당사자의 정직성과 의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기와 기망적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꾸란 제2장 제224절, 제225절: “믿음을 깊이 하고 알라를 공경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그대들이 구실로 하여 알라를 맹세할 때,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알라께서는 그대들의 맹세 시에 경솔한 말을 책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대들이 마음으로 행한 일만은 책하신다. 알라께서는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꾸란 제83장 제1절~제4절: “화 있을진저, 감량자들이여, 그들은 남한테 물건을 달아 살 적에는 저울눈이 꼭 차게 받는 주제에, 자기가 분량이나 무게를 달아 팔 경우에 이르면 반대로 양을 줄여서 주려고 한다. 그들은 언젠가 소환되겠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5) 이슬람법에서는 불확실성이 포함된 계약을 가라르(Gharar) 계약이라고 일컫고, 그것을 “계약의 목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 3. 소유권

샤리아는 또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샤리아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특정한 제한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을 사용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i) 지출 (ii) 이익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 (iii) 저축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샤리아는 이러한 개인 수입의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 (1) 지출에 대한 규제

이슬람에서 개인의 수익을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해악적인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컨대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낭비할 수 없다. 술을 마시거나 다른 취하게 하는 것들에 탐닉할 수 없다. 낭비적인 지출과 음악, 춤 그리고 오락물 등과 유사한 비생산적인 여가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이 실크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장신구와 식기를 사용하거나 그림과 인간 형태의 모형으로 벽을 장식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이슬람은 인간이 자기 권력의 확대에서 오는 수익 대부분을 낭비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폐쇄한다. 이슬람에서 금전의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꽤 많은 삶을 유지할 때다. 따라서 개인이 저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선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합법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부를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궁핍한 자와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돕기 위하여 선한 이유로 쓰여져야 한다. 이슬람에 따르면 금전을 가장 좋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정당한 필요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남은 금전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이 사회적 행동에서 가장 숭고하며 진정한 무슬림의 행위 모델이라고 평가하는 자질이다.

---

적 혹은 대상물이 계약의 양 당사자 혹은 어느 일방에게 결정되지 않은 거래이며, 그 계약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것으로 해석하여 불법으로 간주한다. Islamic Glossary, 출처 <<http://www.ummah.org.uk/science/dictionary.htm>>(2017.5.8 접속).

## (2) 이자를 통한 이윤창출 금지

실질적으로 돈과 부유함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은 단순한 설교 또는 추상적인 도덕계에 의해 완벽하게 극복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훈계를 받든간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치품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생각에 탐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개인의 타당한 필요에 대해 지출한 이후 저축된 부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규범적 제한을 부과해 왔다. 즉 이슬람에서는 전적으로 모든 이자부 거래를 금지해 오고 있다.<sup>6)</sup>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을 누군가에게 대출로서 또는 그가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돕는 수단으로 빌려주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준 자본 총액만큼만 돌려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슬람은 억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증추를 없애고 있다. 이는 자본가가 자신의 부를 크게 증가시키고 다른 이들로부터 경제적인 재원을 착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크게 훼손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샤리아는 기업가가 자신의 잉여 돈을 개인적 사업, 거래, 산업, 합작투자 또는 이익과 손실의 공유에 기초하는 동등한 참여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적 필요를 초과하는 부의 축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3) 부의 순환과 사회보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슬람은 사람들이 그들의 잉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다른 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그들이 버는 것은 무엇이든 지출하게 함으로써 자본 순환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자신의 수입에서 저축과 여유 자금을 모을 수 있다면 저축된 총액의 2.5%를 잘 고안된 사회복지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필수적 기부 또는 자카(Zakah)로서 매년 강제적으로 공제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

6) 샤리아에서 이자는 고리대금(usury) 혹은 리바(riba)로 간주되어 “대여 혹은 매매에 불구하고 자본의 불공정한 증가”로 해석하여 합법적인 이윤과 다르게 불법적인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꾸란 제3장 제130절은 “믿는 사람들아, 두 배를 또 두 배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여라. 그러면 아마도 너희들은 광명을 얻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나이가 꾸란은 구체적으로 상거래에서 형평 및 공정성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고리대금 혹은 이자의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꾸란 제2장 제278절-제279절: “믿는 사람들아, 알라를 공경하라. 그대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 이라면 아직 남아 있는 이자를 포기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알라와 그 사도로부터 선전(宣戰)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러나 회개한다면 원금만은 그대들 것이다. 즉 자기도 부당한 짓을 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짓을 당하지 않는다.”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은 공공기금[바야트 알 말(Bayt al-Mal)]으로 예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야트 알 말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확실한 재원이 될 것이다. 자카의 이슬람 시스템은 실제로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잘 열려진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는 사회적 원조 또는 보장을 위한 제도화된 체제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에 부를 재투자하는 데 탐닉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자본주의 환경 내의 모든 개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자원에 의존하는데서 온다. 이것이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제도를 창출시켰다. 만약 누군가가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굶주려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재원을 남겨두지 않고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죽는다면, 그의 가족은 무일푼이 되고 아무도 그들에게 구호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질병이 있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서 아무 것도 모아둔 것이 없다면 그 개인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화재로 인한 집의 전소, 사업에서의 손실 또는 다른 유사한 비상상황의 경우 어디에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노동자 계층이 그들의 고용주에 의해 부과된 조건과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채,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존성과 무력함에서 온다. 가난한 노동자는 만약 고용주가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적고 불충분한 임금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식주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수백만명이 음식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는 재고품이 넘치고 수백톤의 음식이 버려진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궁핍한 자들이 이용 가능한 추가적인 경제적 자원을 만들어 내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력을 창출시키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산업, 거래, 농경, 예술과 공예에서 전반적인 진보로 이어질 것이다.

자카와 바야트 알 말의 이슬람 시스템은 그러한 자선적인 체제를 제공한다. 바야트 알 말은 개인이 도움이 필요한 때에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이다. 사람은 내일의 굶주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바야트 알 말에 가서 자신의 몫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면 은행예금 또는 생명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는가? 이슬람 시스템의 자비로운 우산 아래에서

누구나 자신의 사후에 공공 기금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돌볼 것임을 알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누구나 질병, 노년 또는 자연재해의 경우 바야트 알 말의 도움을 항상 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일하도록 강제하는 비정한 자본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국가에서 제도화된 방식이며 사람들이 의식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한다. 이는 자본을 생산할 수도 없거나 자신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돕는다.

자카에 더하여 부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슬람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정책은 상속법을 통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법체계는 샤리아를 제외하고 누군가가 모은 부를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부가 축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산 소유자가 죽으면 그의 자산은 미리 정해진 몫에 따라 분배되어진다. 이슬람에서 피상속자는 상속자의 아들, 딸, 부인, 부모, 형제자매이며, 그들간 유증은 이슬람 상속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만일 상속 개시시, 가까운 친족이 부재하는 경우 샤리아 규범에 따른 유증 분배를 위해 먼 친척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해진다. 나아가 가까운 친족 및 먼 친족이 없고 상속인의 법적 피상속자로 간주되는 입양된 아들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가 법적인 피상속자가 되어 상속자가 남긴 부는 바야트 알 말로 예치된다. 그러므로 샤리아는 만약 누군가가 수십억대의 부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사후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세대 내에서 분산될 것이고 결국 부의 집중이 점진적으로 분산되고 더 넓게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 Ⅲ. 맺은 글

이 글은 이슬람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설명하지 않았다. 예컨대 샤리아에서 어떻게 토지가 경영되고, 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되며, 거래와 산업을 위한 자본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선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무슬림은 과거 비이슬람 세계인 서방으로부터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두고서더라도 비이슬람적 각종 경제시스템의 우세로 새로운 모든 것에 위압되는 경향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 오고 있다. 무슬림 뿐만 아니라 비무슬림인도 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면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이 인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며 가장 적합한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이 시스템이 이슬람의 신념,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관념의 전체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은 그 정치적, 사회적, 법적, 시민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샤리아에 기초하고 있다. 무슬림은 비록 샤리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신에 대한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즉 무슬림은 누구나 사후세계와 심판의 날의 책임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교리와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의 부분이 되는 행동수칙이 무엇이든 간에 꾸란과 예언자 모하메드(the Holy Prophet)의 순나(Sunnah)에 의해 보존되는 신의 인도(the Divine Guidance)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은 하루도 독립하여 기능할 수 없고 어떠한 이득도 삶의 의미가 없는 시도로부터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체적으로 삶의 이슬람적 방식인 신념과 행동의 전체 시스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발터 M. 바이스 (임진수 번역), 이슬람교, 예경출판사, 2007.
- 손태우, CISG 제78조의 이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아랍 이슬람법(샤리아)의 법적 적용, 상사판례연구 (2007).
- 손태우, 아랍 이슬람국가에서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0.5).
-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법원에 관한 연구, 부산대 법학연구 (2013).
- 야히야 에머릭 (한상연 번역), 이슬람, 삼양미디어, 2012.
- 이원삼, 이슬람법사상, 아카넷, 2001.
- 한스 쾅 (손성현 번역),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시와 진실 출판사, 2012.
- 홍성민, 이슬람 경제와 금융, KUIS Press, 2009.
- 홍성민, 김종원, 홍순재, 이선희, 이슬람 금융의 이해와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0.
- 한동훈, 이원삼, 안수현,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 Abdur Rahman I. Doi, Shariah: The Islamic Law, A.S. Noordeen Publisher, 2011.
- Amin Ahsan Islahi, Difference Between Hadith and Sunnah, 출처  
<<http://renaissance.com.pk/jafelif986.html>>.
- Aziz al-Hibri, Law and Custom: Redefining Muslim Women's Rights, 12 Am. U.J. Int'l L. & Pol'y 1 (1997).
- Benard Weiss, Interpretation in Islamic Law: The Theory of Ijtihad, 26 Am. J. Comp. Law 200 (1978).
- Bharathi Anandhi Venkatraman, Comment, Islamic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e the Shari'a and the Convention Compatible?, 44 Am. U. L. Rev. 1949 (1995).
- C.G. Weeramantry, Islamic Jurispruden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t. Martin's Press, 1988.
- Chibli Mallat, Middle East Between Classical Transaction and Modern Law, 48 Am. J. Comp. L. 81 (2000).
- Faltima Akadda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o Arab Islamic Countries: Is the CISG Compatible with Islamic Law Principles?, 13 Pace Int'l L. Rev. 1 (2001).

John H. Donboli & Farnaz Kashefi,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A Primer for U.S. companies, 38 Cornell Int'l L. J. 413 (2005).

Lu'ayy Minwer Al-Rimawi, Relevance of Shari'a in Arab Securities Regulat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Jordan as an Arab Regulatory Model, 27(8) Comp. Law. 227 (2006).

Michael J.T. McMillen, Islamic Law Forum-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s in Review: 2007-, 42 Int'l Law 1017 (2007).

Mumisa Michael, Islamic Law -Theory and Interpretation, Amana Publication, 2002.

Nathan J. Brown, The Rule of Law in the Arab World: Court in Egypt and the Gu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Raj Bhala, Poverty, Islam and Doha: Unmet Challenges Facing American Trade Law, 36 Int'l Law. 159 (2002).

Raj Bhala, Islamic law(Sharia), LexisNexis, 2011.

Reza Aslan, No god but God: The origins, evolution, and future of Islam,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2006.

Sayed Hassan Amin, Classification of Legal Systems in the Muslim Countries, 7 Islamic & Comp. L. Q. 93 (1987).

T.S. Twibell,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Under Shari'a (Islamic Law): Will Article 78 of the CISG Be Enforced When the Forum is an Islamic State? 9 Int'l Legal Persp. 56 (1997).

Ziauddin Sardar & Zafar Abbas Malik, Introducing Islam, Icon Books, 1994.

<국문초록>

샤리아인 이슬람법은 서양의 대표적인 기독교법처럼 기본적으로 종교법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신의 구원대상으로 보며 인간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회적·정치적 지배대상으로 보아 종교적 신앙은 정부 등 정치적 집단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종교인은 세속법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반면에 이슬람의 법은 알라 계시의 한 부분이며 계시에서 유래된 샤리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규범을 규율한다. 무슬림은 영적인 종교와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를 샤리아의 틀 속에서 함께 보존한다. 샤리아는 무슬림의 일반생활 및 경제생활을 관할하는 민법과 상법과 같은 민상법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인류는 태초부터 한정된 자원과 인간본성으로 사유재산의 발생, 빈부 격차, 자본의 거대화, 독점 등 경제적 문제가 삶의 모든 부분을 거의 지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비무슬람국가의 경제학자, 정치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시스템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다. 그렇지만 인류의 경제문제는 여전히 풀이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비무슬람국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슬람국가는 경제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슬림은 과거 비이슬람 세계인 서방으로부터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두고서더라도 비이슬람적 각종 경제시스템의 우세로 새로운 모든 것에 위압되는 경향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 오고 있다. 무슬림 뿐만 아니라 비무슬람인도 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이 인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며 가장 적합한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은 그 정치적, 사회적, 법적, 시민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샤리아에 기초하고 있다. 이슬람의 경제 시스템은 하루도 독립하여 기능할 수 없고 어떠한 이득도 삶의 의미가 없는 시도로부터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체적으로 삶의 이슬람적 방식인 신념과 행동의 전체 시스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 샤리아, 이슬람법, 자본주의 경제, 꾸란, 하람, 할랄, 리바, 이자, 자카트, 순나, 이슬람

인류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샤리아의 태도를 통해 본 샤리아(이슬람법)의 경제 규범에 관한 소고

<Abstract>

## View on its economic norms from the standpoint of Sharia(Islamic law) about the economic problems of human races

*Kim, Bun-Tae\**

Even though Westerns' main objective in economic activity is to earn wealth, Sharia impresses on a Muslim the need to earn through Halal means and shun anything Haram. That is, a major ethical component of any economic activity in Islam is to provide justice, honest and fairness and to ensure all parties their rights and dues.

Like all legal codes, Sharia is also not static. It can provide guidance and legal cover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The classical Sharia forms of business association have been adapted for new purposes, and some renewed study has taken place. The success of Islamic Finance has contributed to a more general awareness of the relevance of the Sharia to commerce. It is also highly regarded virtues in Islam, every individual within organiz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ethical conduct while carrying their commercial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 dimension of Islamic perspectives of economic activities has broader horizon and cannot compartmentaliz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which all actions and obligation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vine law of Islam.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nature, applications and comparison of Islamic principles of Sharia with conventional principles of economic activities of Western people, especially economic problems of human races.

The economic system of Islam is closely interlinked with its political, judicial, legal, civil and social systems, while these are all based on its moral codes.

Keywords : Sharia, Islamic law, Capitalism economic, Quran, Haram, Halal, Riba, interest, Zakat, Sunnah, Islam

---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